

참여프로그램	영어권 자매대학 장기 어학연수
파견대학 (기관)	그리피스 대학교

1.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8월 말에 출국하였으며, 비자는 6월 말에 신청하여 여유 있게 승인 받았습니다. 보험은 카카오 장기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였고, 항공권은 7월 중순에 젯스타 항공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저가항공이었기 때문에 기내식과 수화물 무게를 추가하였으며, 총 항공권 비용은 약 38만 원이었습니다.

출국 전 준비물로는 호주가 한국과 계절이 반대인 것을 고려해 계절에 맞는 옷,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본적인 비상약도 함께 챙겼습니다. 또한 호주의 콘센트 모양이 한국과 달라 해외여행용 멀티탭을 준비하였고, 벌레가 많은 환경을 대비해 파리채도 가져갔습니다. 식기, 도시락 통, 텀블러 등 간단한 주방용품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제 및 환전을 위해 한국에서 미리 트래블월렛 카드를 신청해 두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전하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전자기기: 만약을 대비한 세컨폰과 여분의 케이블을 챙기면 편리합니다.

현지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 경우 필요한 여권, 비자 승인 서류는 미리 복사하거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항 도착 후

저는 브리즈번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후 먼저 유심을 구매하였으며, 공항 내에 바로 보이는 옵티스(Optus)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용한 요금제는 데이터 100GB 기준으로 월 약 4만 원이었고, 사용하면서 속도 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며 데이터 용량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교통편의 경우, 홈스테이를 신청한 학생들은 호스트 패밀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고, 홈스테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숙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는 홈스테이를 신청하지 않아 약 5일간 호스텔에 머물렀으며, 공항에서 골드코스트 방향으로 가는 에어트레인을 이용해 헬렌스베일(Helensvale)역까지 이동한 뒤 트램으로 환승하였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요금은 에어트레인이 25달러 이하, 트램은 50센트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

- 공항 유심은 시내보다 약간 비쌀 수 있지만, 도착 즉시 사용 가능해 초반 이동과 연락에 매우 편리합니다.

- 트램과 기차 이용 시 교통카드(Go Card)를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3. 파견 대학(도시) 소개

그리피스 대학교는 호주 동쪽 해안 사우스 이스트 퀸즐랜드(South East Queensland)에 위치한 공공 연구 중심 대학으로,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에 총 6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수는 약 45,000명 이상이며, 300개 이상의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대학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의학, 법학, MBA, 회계학, 호텔경영학, 항공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은 평균기온 15도~26도로 굉장히 온난한 편입니다. 인구수는 골드코스트(500,000명), 브리즈번(2,270,000명)로 지역민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유명한 관광지이자 휴양지인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는 끝없이 이어지는 해변과 서퍼들의 천국으로도 특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관광지로는 브리즈번의 Lone Pine Koala Sanctuary, South Bank 골드코스트의 Surfers Paradise , Pacific Fair Shopping Centre 등이 있습니다.

4. 학교 생활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주당 총 20시간의 정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 출국 전에 실시한 레벨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반 배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정된 반의 난이도가 본인의 수준과 맞지 않는 경우, 문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낮은 반에 배정되어 상향 조정을 했고, 마지막 학기에는 수업 난이도가 높아 반을 한 단계 낮춰 수강하였습니다.

수업은 반마다 제공되는 클래스 노트북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개인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해 교재를 확인하면서 참여합니다. 교재는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리딩을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피킹 활동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비교하며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라이팅은 아카데믹한 글쓰기를 배우며, 서론·본론·결론 구조와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익히고 매주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를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 중에는 버스나 트램으로는 이동하기 어렵고 차량으로만 갈 수 있는 산이나 바이런 베이 같은 장소도 포함되어 있어 꼭 참여해 보기를 추천하며, 골드코스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큐원(Q1)이나 전시 관람과 같은 액티비티도 입장료를 크게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 숙소

저는 홈스테이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해 거주하였습니다. 홈스테이 비용이 부담되었고, 숙소가 랜덤으로 배정된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홈스테이에 만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생활 방식이나 환경이 맞지 않아 중도에 숙소를 옮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국 전인 7월부터 '플랫메이트(Flatmate)' 앱을 통해 숙소를 알아보았고, 호주 도착 후에는 약 5일간 호스텔에 머물며 미리 연락해 두었던 집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뒤 최종 거주지를 결정하였습니다.

5. 성과

이번 파견을 통해 얻은 성과는 크게 어학 능력의 향상과 시야의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어학 측면에서, 출국 전에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았고 특히 말하기는 경험이 적어 부담과 불안이 컸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말하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로 말할 때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문장을 즉각적으로 구성하며 대화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리스닝 실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표현과 어휘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마트, 트램, 식당, 거리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면서, 초반에는 거의 들리지 않던 말들이 점차 들리기 시작했고 상황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진로에 대한 시야와 가능성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호주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일을 찾고 살아가는 모습과,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며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전공이나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직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현지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교육·복지 전공자들이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 지원 인력, 발달 지원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운영자 등 여러 역할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특수교사가 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이상적인 진로라고 생각해 왔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특수교사가 아니더라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진로에 대한 시야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선택지가 다양해지자 직업의 가치 판단의 기준 또한 변화하게 되었고,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만족감과 가치관이 진로 선택에 있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파견을 통해 얻은 큰 변화이자 개인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6. 비용

	비용
프로그램	5,000,000원
항공료	380,000원
신체검사	190,000원
보험료	300,000원
숙박	주 250,000원(월 1,000,000원)
식비	월 400,000원
통신비	월 40,000원

7. 기타 중요사항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은, 학생 혜택과 생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활비 부담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마트 이용 시, 콜스(Coles)는 Flybuys, 울월스(Woolworths)는 Woolworths Rewards 적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각각의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통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주간 할인 상품과 회원 전용 특가 품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식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 학생 신분으로는 다양한 교내 스포츠 및 웰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가, 수영, 복싱 등의 클래스가 학생 할인 또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체력 관리와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프리 그로서리 마켓(Free Grocery Market) 이 열려 기본적인 식재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학교에서 저녁 식사가 제공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학생이라면 Griffith Mates(그리피스 메이트)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국제학생 대상 이벤트와 액티비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용이 높은 체험 활동도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입장료가 약 100달러인 드림월드(Dreamworld)를 20달러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영화 관람 시 Cinebuzz(시네버즈) 를 통해 학생 할인을 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